

요산 김정한의 신문 매체에 대한 인식과 소설 창작 방법 연구 - 「어떤 유서」를 중심으로

오 현 석*

차 례

1. 들어가며
2. 요산 김정한의 신문 매체에 대한 인식과 「어떤 유서」
3. 사건과 공간의 변용을 통한 작가의식 표출
4. 자본 침탈에 의한 정실환지의 문제와 현실고발
5. 나오며

국문초록

이 연구는 김정한의 소설 「어떤 유서」와 신문 기사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김정한은 평생 신문을 가까이 하고 신문 기사를 소설에 창작에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어떤 유서」와 동아일보의 기사는 소설 플롯의 전개와 신문기사의 사건 발생 개요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어떤 유서」와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김정한의 작가의식과 소설 창작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부산대학교

김정한은 리얼리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그래서 그는 신문 기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신문은 민중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1974년 6월 3일 동아일보의 기사와 『어떤 유서』는 매우 유사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정한은 신문 기사를 자료로 소설 『어떤 유서』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신문 기사와 『어떤 유서』는 권력자가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산업화 시기 농토는 개발을 위해서 파괴되었다. 농민들은 권력자 때문에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쫓겨났다. 김정한은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또 『어떤 유서』는 세대 간의 갈등도 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노인들은 비판한다.

김정한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이고 대부분의 소설이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김정한의 소설은 대부분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김정한 소설의 지역성은 하나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보편성이다. 그 이유는 그의 소설이 모든 민중들의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의 소설쓰기는 언제나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해 주는 적극적인 작가의식의 표출이다. 신문 기사는 이런 작가의식을 표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요산, 김정한, 단편소설, 어떤 유서, 리얼리즘, 민중, 신문기사, 정실환지, 농민

1. 들어가며

요산(樂山) 김정한(金廷漢)은 우리 문학사에서 리얼리즘, 민족주의, 민중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문학은 체험과 불타는 의지로 구성된 세계¹⁾를 구축하고 작가 자신의 직접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질곡을 잘 드러내고 있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작품 경향은 김정한이 평소 지니고 있는 작가 의식과 관련이 깊다. 그는 문학을 하는 이들에게 “책상 위에서 글을 쓰겠다고 꿈꾸거리지 말고 발로써 글을 쓰라.”²⁾고 항상 주문했다. 이 말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현실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써야만 거짓이 되지 않고 생동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김정한이 세상사를 보고 듣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노력해온 작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정한의 소설은 현실 체험과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탐독의 결과물이다. 일제강점기에 발표한 작품들 중 『사하촌』(1936), 『월광한』(1940), 『낙일홍』(1940), 『추산당과 결사사람들』(1940) 등은 작가의 어린 시절이나 남해 교사 시절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소설이다. 해방 이후 『옥중회갑』(1946)과 1960년대 이후 『모래톱 이야기』(1966), 『과정』(1967), 『위치』(1975), 『교수와 모래무지』(1976), 『슬픈 해후』(1985)와 같은 작품들도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그래서 김정한의 소설은 작가의식이나 등장인물이 지닌 명확한 사회참여 의식 때문에 작품 전반에서 작가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김정한이 중앙 문단으로 복귀³⁾한 1960년대와 본격적으로 후기 작품

1) 김병걸, 『김정한 문학의 리얼리즘』, 『김정한』, 새미, 2002, 59쪽.

2) 김정한, 『황량한 들판에서』, 황토, 1989, 132쪽.; 김정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244쪽.

3) 김정한, 『김정한 소설선집』(창작과비평사, 1983) 486쪽. 이 책의 연보(年譜)에는 “중앙 문단 복귀”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김정한의 다른 저서 『인간단지』(한얼문고, 1971)의 요산연보에는 “문단 복귀”로 기록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자서(自序)에서 밝혔듯이 작가가 『모래톱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작가로서 현실에 침묵하지

활동을 했던 1970년대는 이전 시기의 순수문학의 기존 작가들이 건재함과 동시에 이를 지양하고 기존 문단에 대항하면 나타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문학이 성장하던 시기이다.⁴⁾ 또한 구조주의 경향이 흔들리면서 탈구조주의의 싹이 돋아나던 시기이다. 이전 시기 몇몇 대표 작가들 중심의 문단에 다양한 경향들이 수용되면서 독자층 역시 확대되고 작품 해석의 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작가(저자)가 작품(텍스트)로부터 점차 분리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때이다. 즉,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저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경향이 점차 벌어지고 독자들의 능동적인 텍스트 해석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정한은 여전히 곳곳하게 소설을 통해 작가로서의 책무를 다하려고 했다. 그 결과 그는 롤랑 바르트가 언급한 ‘저자의 죽음’⁵⁾을 비껴가는 작가가 되었다. 오히려 김정한은 그 후 롤랑 바르트가 1980년 죽기 전 강의에서 밝힌 저자의 귀환(회귀)⁶⁾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듯 김정한의 소설은 연구자들에게 시대를 반영하고 작가의 체험이 녹아있는 민중적 리얼리즘 소설로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연구에서 작가 체험은 연구자들에게 작품 연구의 중요한 기준이자 정형화된 틀로 인식되었다.⁷⁾ 그의 소설 연구가 민중 문학, 리얼리즘 문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결국 작가가 주도하여 작품 속에 현실의 부조리를 드러내겠다는 강한 목적의식을 보여준다.

4)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97, 392쪽.

5) 롤랑 바르트, 김희영 옮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27쪽.

6) 롤랑 바르트, 변광배 옮김, 『마지막 강의』, 민음사, 2015, 345-346쪽.

7) 연구자들은 리얼리즘과 작가의 체험이 요산 문학을 대표하는 특질이라는 점을 중요한 논점으로 두려는 강박관념 또는 당위의식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최미진은 김정한의 소설 연구가 “작가의 삶과 문학에 대한 별다른 의문 없이 재생산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즉, 김정한 문학 연구가 작가의 직접 체험이 중요한 연구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간접체험, 순수한 창작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산은 작품 활동을 해왔다. 최미진,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246쪽.

학, 저항 문학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작가의 체험과 작품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정관념은 김정한 소설 연구의 방향성을 제한했다는 문제가 있다. 연구자들의 이런 인식은 “작가의 체험적인 사실이 현실과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특수성이 보편성으로 고양되지 못한 경우”⁸⁾라는 한계를 지적하게 하였다. 즉, 체험의 소설화가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던 작가의 삶과 체험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직접 체험이 아닌 간접 체험을 통한 소설 창작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한에 대한 평가는 직접 체험과 리얼리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의 소설 대부분이 작가가 체험을 통해 창작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많은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체험하거나 관찰한 사회를 반영하여 창작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간접 체험에 의한 소설쓰기도 김정한의 중요한 창작 요소 중 하나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김정한의 소설은 작가가 직접 체험한 경험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고, 듣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형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간접 체험을 통한 민중적 리얼리즘 소설 창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신문기사 등의 언론 매체이다. TV나 전자 매체가 발달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가 지식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김정한 역시 당대 사회를 신문, 잡지, 뉴스 등을 통해서 읽어내었으며 작가에게 선택된 기사나 뉴스는 소설의 소재나 모티브가 되었다. 특히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민중들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의 소설 창작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즉,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민중들의 삶을 드러내는 언론 매체들은 작가가 간접 체험을 통해 현실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원천이었던 셈이다.

8) 강진호, 『근대화의 부정성과 본원적 인간』, 『김정한』, 새미, 2002, 143쪽.

언론 매체에서 노출되는 사건이나 이야기들은 여러 작가들의 작품 창작의 소재나 모티브가 되어왔다. 작가가 신이 아닌 이상 작품이 모두 직접 체험을 통해 창작될 수는 없다. 직접 체험을 통한 작품 생산은 내용의 진실성 측면이나 작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간접체험을 통한 작품 창작은 작가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간접체험을 통해서 작가의식이 투영되고 창작의 기법과 작가의 특색을 충분히 녹아나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현실”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김정한의 소설이 지금까지 직접체험의 관점에서 읽혔다면 본고에서는 간접체험을 통해 김정한이 현실을 어떻게 작가적 상상력과 작가 의식을 발현하여 소설을 창작했는지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즉, 본 연구는 김정한의 소설 중 『어떤 유서』(1975)라는 단편소설을 통해 김정한의 소설 쓰기가 단순히 작가의 직접 체험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즉, 사회를 고발하고 부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언론 매체를 활용한 간접 체험도 김정한이 선택한 소설 쓰기의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김정한이 현실을 반영한 리얼리즘 소설을 쓰기 위해 과거의 자기 체험에만 정체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현재에 천착하여 ‘지금’, ‘이곳’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 이와 같은 작가의 간접 체험이 공간 변용과 플롯의 변형을 통해서 소설을 입체적 구조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밝힘으로서 김정한의 소설 창작 방법을 기존 시각에서 확대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요산 김정한의 신문 매체에 대한 인식과 『어떤 유서』

김정한의 삶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신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요산 소설이 신문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요산 소설과 신문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가 신

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그의 소설과 신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신문은 기본적으로 사실성과 중립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의 상황이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왜곡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탄압 하에 조선의 가치는 무시되었으며 해방기와 1960년대 이후는 미군정기, 군부 독재 등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유가 억압당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런 부조리한 사회 현실 속에서 김정한은 신문의 역할에 대해서 소설과 수필을 통해서 고민하고 표현했다.

먼저 김정한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신문의 역할을 드러냈다. 그가 남해에서의 교직 생활을 청산하고 1940년 6월 고향 동래로 돌아온 것은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운영하기 위해서였다.⁹⁾ 8년 가까이 교사로 근무하며 가장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살던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제에 탄압받고 있는 『동아일보』 지국장이 되려고 한 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신문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폐간의 위협을 받는 민족지를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한 그는 결국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류를 살게 된다. 그 와중에 『동아일보』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간 당하고 만다.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민족지가 사라진 현실에서 김정한은 “조선 사내의 울음”¹⁰⁾을 울었다. 작가가 1940년 초부터 8월 『동아일보』 폐간 때까지 『동아일보』 지국장을 맡으면서 실제 경험했던 일들은 『위치』(1975)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위치』의 주인공 ‘나’는 결국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인수하여 갖은 고초를 겪고 신문 강제 폐간으로 분노한 김정한 자신으로 볼 수 있다. 이

9) 남해 생활의 청산은 김정한을 둘러싼 내외의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이순옥은 김정한이 남해생활을 청산한 이유를 『동아일보』 동래 지국 운영, 문학에 대한 열망, 가장으로서의 생활고를 들고 있다. 이순옥, 「1940년 6월 요산 김정한의 귀향 전후」, 『근대서지』 제8호, 근대서지학회, 소명출판, 2013, 223-237쪽.

10) 김정한, 「신문 말자 강제 폐간 - 문학과 인생⑤」, 『황량한 들판에서』, 황토, 1989, 94쪽.

소설을 통해서 김정환은 자신이 생각한 신문의 역할과 책무를 드러냈다. 소설에서 지국장을 맡고 경찰서로 불려간 ‘나’에게 경찰 계장은 신문에 “비뚜러지게 보도하는 따위”를 조심해라는 경고를 한다.

“신문도 물론 장사에 속하겠지만 정확한 걸 써 줘야 되겠더군요. 그
는 일부러 인 듯 커다랗게 벌린 입에서 담배 연기를 한번 무턱지게 내
뿜고는 말을 계속했다. “가령 독자가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수송 도중에
일부 분실이 된다는가, 또는 배달원이 누구에게 얻어맞는다는가 할 경
우 말입니다. 그런 걸 마치 관이나 그런 데서 방관하고 있다든가, 더 심
한 예로는 일부러 시켜서 그러리라는 듯한 느낌을 주는 논조로 비뚜러
지게 보도하는 따위 말입니다——.”¹¹⁾

경찰 계장은 “신문도 장사”라는 말로 신문의 가치를 폄하하고 중립성
이 전제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신문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
고 있다. 계장은 이런 관점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를 비난한다. 즉, 일제
가 교묘한 술수를 써서 독자를 위협하여 정기구독을 막고 신문을 강탈
하거나 배달원을 폭행하는 등 당시 신문사에 은밀하게 가해지는 폭력을
관에서 방관한다는 논조로 기사를 썼다고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나’는
경찰 계장의 말에 불안이나 좌절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신
문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기회로 삼았다.

“정확한 보도 —— 그렇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
이 신문의 사명일 테니까요.” (『위치』, 4권, 229쪽)

김정환은 신문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것을 객관

11)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위치』, 『김정환 전집』 4권, 작가마을, 228쪽. 이하
『김정환 전집』에서 인용하는 작품은 인용문 끝에 제목, 권, 쪽 수만 표시한다.

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의 시각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김정환은 이러한 부조리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김정환이 신문의 가치를 언급하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은 1980년 『국제신문』 강제 폐간이다. 작가는 『국제신문』에 60여 편의 글을 발표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신문으로서 해방 이후 그 명맥을 유지했지만 1980년 “타의”에 의해서 신문이 폐간되는 상황을 목격한 작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¹²⁾ 작가가 군부 독재 정권의 언론 통폐합과 외부의 압력에 의해 폐간 당한 신문을 작가가 일제강점기 체험했던 『동아일보』 폐간 사건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는 신문이 외부의 압력에 대항하여 현실을 더욱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작가는 신문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언론 매체로 여겼다. 예를 들면 작가는 “신문은 폭로함으로써 생존한다. 신문에 입수되는 것은 모두 공중의 지식이 되고 현대의 역사가 된다.”¹³⁾는 타임지에 나온 말을 인용하여 신문의 역할을 언급했다. 신문의 글은 신선하고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정환이 생각했을 때 신문은 모두에게 공유되는 지식이 되어야 하며 현실의 강압을 극복하여 자유, 진리,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했다. 두 번의 신문 폐간 사건을 체험한 작가는 신문이 민중의 삶을 드러내고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리얼리즘의 보고라고 여겼다. 그래서 신문이 외부의 압력에 좌우되는 현실을 작가는 끊임없이 비판했다.

그런데 이런 신문의 책무를 외면한 신문들도 있다. 작가가 살아온 시대에 권력에 아부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특정 세력의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는 부류의 신문이다. 이에 대한 작가의 언급은 「위치」를 통해서도

12) 김정환, 「국제신문 폐간사를 읽고」,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185쪽.

13) 김정환, 『洛東江의 파숫군』, 한길사, 1978, 150쪽.

잘 드러난다.

그러나 당시 신문을 통해서 안 이러한 일들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가 직접 몸담고 있던 교육계에서 저질렀던 일이다. <일부 극소수>가 소위 <절대 다수>로 둔갑했던 해괴망측한 사실이다. —학무당국이 조선어수업폐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소학교에 지시를 내려, 조선어교육에 대한 학부형들의 찬반의사를 학생들을 통해 조사 보고케 한 일이 있었다. (...중략...) 여당지인 매일신보 같은 데서는 보아란 듯이 크게 다루었지만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조작이다! 거짓이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들어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비록 조작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만든 조작이 아니었을까? (『위치』, 4권, 236쪽)

친일매체인 『매일신보』는 대다수의 조선 민중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조작을 통해 민중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보도했다. 『매일신보』는 “여당지”로서 충실하게 권력의 편에서 일제강점기 침략자의 시각을 정당화시킨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신문이 언론매체로서의 책무를 잃어버리고 권력자의 하수인이 된 경우는 수없이 많다. 그래서 작가는 신문이 “사회의 목탁”¹⁴⁾ 구실을 해야 하지만 오히려 여론을 만들에 내는 곳이 되어버린 상황을 비판했다. 즉, 작가는 신문이 국민들의 생활을 반영하여 허덕거리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다수 국민들의 여론은 푸대접 받고 “사회란”을 뒤덮은 정당이나 정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의 신문 지면을 부정적으로 보았다.¹⁵⁾ 민중의 삶이 여론이 되는 것이 바로 민중적인 리얼리즘이다. 일그러진 표정들이 바로 민족의 참된 표정이다. 민중문학이란 것은 민중 삶의 역사·사회적 문제를 반영한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하여 민중을 위하여 창조되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¹⁶⁾

14) 김정환, 『여론과 신문』,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91쪽.

15) 김정환, 위의 책, 92쪽.

이처럼 김정한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동아일보』 강제 폐간을 계기로 평생 동안 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의 역할과 신문의 정치화를 경계하는 글을 많이 남겼다. 신문이 정치 세력이나 권력에 빌붙는 경우도 많았지만 여전히 당대 민중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매체였기 때문에 요산은 평생 신문을 곁에 두고 외면하지 않았다. 그의 소설에는 작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신문기사에 실린 민중들의 삶을 근거로 한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김정한은 직접 체험을 통해 소설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 체험을 통한 소설 쓰기도 적극적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삶이 녹아 있는지, 아닌지 이지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김정한이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간접 체험을 통해 소설쓰기를 해 온 여러 증거들을 1960년대 이후 작품들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간단지』(1970)는 부산지역에서 당시 음성나환자들의 집단거주지를 조성하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 저지한 1965년 5월 11일자 『경향신문』의 기사¹⁷⁾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57년 경남 사천시 비토리 섬에서 발생한 일명 ‘비토리 섬 학살 사건’ 역시 당시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의 신문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었는데 작가는 이 기사를 바탕으로 소설 속에 주민과 한센인의 갈등과 충돌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인간단지』에 주요 갈등으로 부각되는 희망원과 자유원의 충돌, 원장의 비리, 나환자들의 도심 시위 등은 1958년과 1963년 『경향신문』에 보도된 나환자 패싸움에 대한 기사¹⁸⁾와 유사하다.

16) 김정한, 『민중문학과 리얼리즘』,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17쪽.

17) 『낙동강생원 음성나환자 158명 노숙생활 9일째』, 『경향신문』, 1965년 5월 11일자. 음성나환자들이 정착을 위해서 서구 을숙도에서 용호동 뒷산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산 속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다. 『인간단지』에서 한센인의 정착에 대한 열망과 좌절은 이 기사를 접한 작가의 창작모티브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8) 『나환자 40명 패싸움』, 『경향신문』, 1963년 6월 17일자.; 『원장 갈아달라 성화원 나환자 도당국에 진정』, 『경향신문』, 1958년 7월 29일자.

『어떤 유서』(1975)는 김정환의 소설 중에서 신문기사의 내용을 작가의 당대 사회 문제 인식과 배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소설화 한 작품이다. 특히 이 소설은 신문기사의 중심 사건 정황을 소설의 중심 줄거리로 그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신문기사를 작품 속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작가가 현실의 사건을 소설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공간을 변용하고 부수적인 사건들을 삽입하였기 때문에 소설로써 생동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공간의 이동과 배경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서 지역성을 획득했으며 당대 농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적 리얼리즘을 실현시킨 작품이다. 이처럼 『어떤 유서』는 작가의 간접 체험을 통한 소설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이다. 또한 이 소설은 작가 김정환의 소설쓰기 과정이 오롯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 창작 방법론적 측면에서 작가의 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어떤 유서』는 『동아일보』 1974년 6월 3일자 7면에 보도된 『換地 잘못 향의自殺』이란 신문 기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작가의 다른 작품들은 신문 기사를 소설 속 일부 사건에 국한하고 있거나 등장인물의 연관성 정도로 관련을 맺고 있는 반면에 『어떤 유서』는 작품의 중심 줄거리와 사건의 갈등 관계, 결말까지 신문 기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작가는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중심 사건 사이사이에 또 다른 에피소드를 집어넣어 작품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즉, 소설과 신문 기사가 내용과 결말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작가가 신문 기사를 그대로 옮겨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작품 변용을 통해서 신문 기사보다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그려냄으로써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신문 기사와 소설 분석을 통해서 작가가 신문 기사에서 차용한 부분과 소설에 형상화된 부분의 차이와 공통점을 읽어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작가가 이 소설에서 드러내려고 했던 작가 정신과 작가의 소설쓰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아래 기사의 전문을

밝혀 둔다.

沃畝二千평중 半이상 山깎은 개간地줘

【裡里】 경지정리작업을 하면서 부당 황지로 농민들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환지가 잘못됐다고 농민이 시정을 호소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일어났다. 全北 익산郡 함라面 다망리 망월부락 金容吉씨(五五)는 금강지구 전천후 사업으로 실시된 경지정리 공사로 문전옥답 二千七평을 황지, 그 중 原地는 九百평만 받고 一千一百七평은 산을 깎은 개간지 등 박토를 받았는데 이같은 환지가 원지 본위의 환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들어 그간 관계요로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되자 목숨을 끊어 항의한 것이다. 金씨는 환지받기 전의 문전옥답을三代째 경작해왔는데 환지가 잘못되자 그간 마을환지위원회 車모씨등을 十五회 찾아가 시정을 호소했고 농업진흥공사 강경사업소에 五회나 찾아갔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달 二十八일 오후 가족에게 “논을 되찾으려면 아무래도 내가 죽어야겠다”며 집을 나섰다. 金씨는 이날 농업진흥공사강경사업소에 갔다가 정문에서 출입을 막는 수위와 옥신각신 끝에 신고를 받고 간 강경경찰서 역전파출소 선모순경에게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밤을 새웠는데 그 사이 농약을 먹어 신음중인 것을 발견, 병원에 옮겼으나 二十九일 오전 六시반경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은 金씨의 시체를 해부, 농약 자살임을 밝혀냈다. 金씨는 죽기 전에 익산군수와 이리경찰서장에게 호소문 겸 유서를 우송, 三十一일 당사자들에게 접수됐는데 金씨는 이 유서에서 환지위원들이 정실로 환지했다고 주장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잃었으니 어떻게 선영을 대하고 고향 땅에 묻히겠는가. 정실환지를 시정해 주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항의하겠으니 내가 죽으면 내 땅을 뺏은 농진공사 강경사업소에 묻어 달라”고 썼다. <李正浩기자>¹⁹⁾

이처럼 김정한은 소설의 중심 갈등이나 사건의 전개를 신문의 사회면에서 많이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19) 「沃畝二千평중 半이상 山깎은 개간地줘」, 『동아일보』, 1974년 6월 3일자 7면.

소수자들이나 민중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한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들에게 시선을 두고 현실을 현실답게 드러내는 것이 작가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민중적 리얼리즘을 확고하게 만든 요산의 정신이다. 결국 신문기사는 김정한이 현실을 소설 속에 옮겨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으며 소설로서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작가정신을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사건과 공간의 변용을 통한 작가의식 표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공간의 부재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공간이지만 무의미한 공간인 경우가 많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 공간은 인간이 공간으로부터 배제됨을 촉진한다.²⁰⁾ 『어떤 유서』에서의 중심사건은 『동아일보』 신문기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송노인을 중심으로 정실환지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사건이 전개된다. 하지만 소설에는 신문기사에는 제시되지 않은 부수적 사건들이 삽입되어 정실환지의 부당함에 목숨까지 내 놓은 송노인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기사와 소설은 공간의 구현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작가가 소설의 배경을 다르게 설정하여 지역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 특수성과 보편성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보완해 주는 기능을 했다. 김정한은 공간의 변용을 통해서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 작가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먼저 신문기사의 사건전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20)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159~160쪽.

- ① 농민 김씨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2007평 중 원지는 900평, 1107평은 박토를 받음.
- ② 마을 환지위원을 15회 찾아가고 농업진흥공사에 5회 찾아가 시정을 호소함.
- ③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 ④ 농업진흥공사 강경사업소를 찾아갔다가 정문에서 제지당함.
- ⑤ 소란으로 파출소에 연행됨.
- ⑥ 파출소에서 농약을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숨짐.
- ⑦ 김씨는 죽기 전 익산 군수와 이리 경찰서장에게 정실환지의 문제를 적은 유서 겸 호소문을 보냄.

신문기사는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위주로 서술된다. 기사의 표제인 「沃畝二千坪중 半이상 山畝는 개간地畵」에서 알 수 있듯이 신문기사의 초점은 환지의 부당함이다. 다음으로 「어떤 유서」의 사건전개 양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골프장 건설로 인해 송노인의 집과 농토가 편입됨.
- ㉡ 송노인은 보상받은 돈으로 고속도로 길가 집과 1,500평 정도 농토를 삼.
- ㉢ 송노인의 아들은 군에 간 뒤 몇 년간 소식이 없고 며느리와 손녀와 같이 살고 있음.
- ㉣ 공업단지 건설과 전천후사업으로 인한 경지정리 공사 때문에 송노인의 농토는 또다시 편입됨.
- ㉤ 1,500평 중 원지 400평, 1,110평은 박토로 환지받음.
- ㉥ 송노인은 마을 환지위원장인 동장에게 15회, 농업진흥공사에 6회 찾아가서 시정을 호소
- ㉦ 송노인의 마을과 농토는 골프장과 공장부지로 개발되고 유흥지는 동

물 농장이나 수출관광농장 등의 명목으로 자본가들에게 넘어감.

- ㉠ 마을 모임에서 송노인은 젊은이들과 언쟁을 벌임.
- ㉡ 송노인은 과거 일제강점기 농민봉기사건에 가담한 경험이 있음.
- ㉢ 보리증산 정책에 따라 송노인의 논도 대리경작이 예고됨.
- ㉣ 그날 아침 손녀 순이가 사라짐.
- ㉤ 파출소에서 길을 잃었던 손녀를 찾고 돌아옴.
- ㉥ 그 사이 송노인의 논은 마을 청년들이 대리경작함.
- ㉦ 농업진흥공사 ××사업소를 찾아갔다가 정문에서 제지당함.
- ㉧ 소란으로 파출소에 연행됨.
- ㉨ 파출소에서 농약을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숨짐.
- ㉩ 송노인은 죽기 전 ××군수와 ××경찰서장에게 정실환지의 문제를 적은 유서 겸 호소문을 보냄.

소설은 신문기사와는 달리 사건의 사이사이에 구체적인 정황을 작가의 시선으로 변용할 수 있다. 인물 사이의 대화, 묘사, 새로운 사건의 삽입 등을 통해서 작가가 의도하고자하는 바를 소설 속에 투영하는 것이다. 『어떤 유서』는 이런 변용의 과정을 통해서 신문기사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의미 있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신문기사와 『어떤 유서』의 사건 전개상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사건 당사자인 농민이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농토가 편입되고 정실환지로 원지를 받지 못하고 박토를 받는 등 피해를 입는다. 이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공사 사업소를 찾아갔지만 정문에서 제지당하고 파출소로 연행되어 농약음독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한다. 이처럼 전체적인 사건의 전개는 신문기사와 소설이 동일하다. 소설 역시 갈등의 중심에는 정실환지의 문제가 있다. 즉, 당시 급격히 산업화를 겪는 상황에서 농촌은 산업 개발의 명목으로 계속 침탈당하고 위협 당하게 된다. 농민들에게 농토가 사라지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작가는 농촌의 근간을 흔드는 당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정실환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가가 정실환지의 문제를 소설화하였다.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어떤 유서』를 창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농민이 죽기 전 남긴 유서의 내용에 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잃었으니 어떻게 선영을 대하고 고향 땅에 묻히겠는가. 정실환지를 시정해 주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항의하겠으니 내가 죽으면 내 땅을 뺏은 농진공사 강경사업소에 물어 달라”²¹⁾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과 땅, 그리고 죽은 할멈과 한 평생 배를 곯아 가며 마련한 문전옥답을 빼앗기고, 그 대신 겨우 장만한 땅마저 억울하게 잃었으니 어떻게 선영을 대하고 고향땅에 묻히겠는가. 정실환지를 시정해 주지 않으면 죽음으로써 항의하겠으니 내가 죽거든 내 땅을 뺏은 <오리엔탈 골프장>이나 농진공사 xx사업소에 물어 달라.”(『어떤 유서』, 4권, 226쪽)

신문기사와 소설 마지막 부분에 인용된 농민의 유서 내용을 살펴보면 작가가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소설에서 아내 이야기와 골프장 건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전체적인 유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정실환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작가가 신문기사에 나온 문제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소설로 변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신문기사와 소설에서 사건 전개에 차이점을 살펴보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의도한 바를 좀 더 명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 물론 추가된 사건이나 내용이 소설의 극적 효과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작가가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21) 『沃畝二千坪중 半이상 山畓은 개간地뎌』, 『동아일보』 1974년 6월 3일자.

수단이기 때문에 작가의식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유서』에 추가된 내용은 ㉠ 골프장 건설로 인한 토지의 수용, ㉡ 송노인의 가족사, ㉢ 송노인 본인의 과거, ㉣ 유희지의 자본가 잠식, ㉤ 젊은이들과의 세대 갈등, ㉥ 손녀 순이의 실종, ㉦ 보리증산을 위한 대리경작 등이다. 이를 다시 추려보면 토지 문제, 가족사, 세대 갈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토지 문제는 정실환지의 문제이므로 중심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 단순히 신문기사에서 간단하게 제시한 경지 정리가 아니라 당시 극소수만이 누리는 호화 사치 스포츠인 골프장 건설을 위해 농지를 없앴다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떤 유서』에서 주목할 점은 송노인의 가족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송노인의 아내는 송노인이 농민봉기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지주에게 핍박 받으면서 평생 고생하다가 죽었다. 송노인의 아들은 군에 간 다음 소식이 끊겼다. 그래서 송노인은 며느리, 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문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아내는 일제강점기에 고문당하고 소작농제로 고생하다가 죽었다.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군에 가서 소식이 끊긴 아들은 국가의 폭력에 희생되는 민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농사를 지을 노동력을 상실한 송노인은 보리갈이를 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송노인은 젊은 시절 농민봉기에 관여했을 정도로 사회참여 의식이 뛰어났지만 현재는 젊은 세대에 무시당하는 노인 세대가 되었다. 작가가 이렇게 가족사와 송노인 개인의 상황을 창작하여 소설에 배치한 것은 지배 세력 또는 권력이 민중들에게 얼마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 민중들의 자발적 몰락이 아닌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작가는 세대 간의 갈등도 함께 문제로 인식했다. 1970년대 산업화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전통적 가치가 무너지고 가치의 전도나 역

전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도시로 유입되는 젊은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하고 농촌은 반대로 수익이 줄어들고 노인계층이 남게 된다. 이런 변화는 세대 간의 갈등을 표면화시키기 시작했다. 현대적 가치가 전통적 가치보다 중시되면서 이전 세대가 가진 가치관과 의식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정환은 이런 세태를 송노인의 입을 빌려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환은 신문기사를 모티브로 소설을 창작하면서 작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작가의식을 투영하여 사건을 변용하거나 새롭게 추가해서 소설화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의 변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공간은 지배계급의 체제 유지 수단²²⁾이다.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자의 뜻대로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간을 생산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은 목적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회적 공간들은 서로 침투하거나 쪼개지거나 결합하기도 한다.²³⁾ 『어떤 유서』의 공간 역시 사회적 공간의 생산으로 인한 농민과 민중의 체제 순응과 좌절을 담고 있다.

부락민들은 무슨 영문인 줄도 모르고 모였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듣게 되자, 서로 멍청한 얼굴들만 쳐다볼 뿐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못했다. 도대체 골프란 말조차 처음 듣는 사람도 많았고, 또 말만 들어오던 사람들도 그저 높은 양반들이 하는 일인 줄로만 짐작했지 과연 어떤 것 인지는 몰랐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국가 체면>이니 <지방 발전>이니 하고 나오니까 더욱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돈 가진 사람들의 하는 일은 모두 국가적인 일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 백성들이라 <국가>니 <지방 발전>이니 하는 말 앞에는 움썹달썹 못하는 처지들이었다. (『어떤 유서』, 4권, 210쪽)

22)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17쪽.

23)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위의 책, 153쪽.

국가의 정책과 권력자의 욕망으로 인해서 기존에 자연적 공간인 농토는 사회적 공간으로 변용되어 민중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했다. 또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공간의 변용은 크게 보면 신문기사에서 농지 정리로 제한된 농토에 국한되었다면 소설에서는 단순히 농지정리로 인한 농토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권력자의 횡포가 공간에 만연하여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농민들의 공간을 빼앗음으로써 정착을 불가능하게 하고 강제적 이동성을 부여했다. 이동성은 동일한 조건에서의 이동이 아니라 불균등한 이주를 야기한다. 즉, 사회적으로 배분된 이동성²⁴⁾은 권력자들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민중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을 잃고 정착불가능의 부유(浮游)하는 삶으로 내몰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그들이 살던 집과 농사 짓던 토지가 골프장과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사라졌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 결국 자본은 공간의 변용을 통해서 순수한 농지를 돈의 가치로 둔갑시켜버렸다.

돈 장난이 심한 선거 때나 당국에서 무슨 운동을 들고 나오면 재 들은 중처럼 앞장을 서서, 탁주잔이나 얻어 걸치고 뒤로 무슨 야바우나 꾸미기 일쑤라는 젊은 사람 두엇을 빼 놓고는 모두 어둔 표정들만 짓고 있었다. 그러나 집과 땅을 빼앗기게 될 판이니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그저 또 무슨 변을 당하는가보다 하는 그런 얼빠진 눈치들만 보았다. (『어떤 유서』, 4권, 210-211쪽)

자본이 개입된 공간은 자본의 관점에서 평가, 정의된다. 원지본위가 아닌 정실환지에 의한 환지 방식 역시 자본이 개입된 결과이다. 이처럼 자본화된 공간은 더 이상 ‘장소’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 즉,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활공간은 무장소성이 일상화되면서 장소 귀속감이나 정체성은 소멸하게 되었다.²⁵⁾ 그래서 농민들이 골프장이나

24) 류지석 엮음,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205쪽.

25)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195쪽.

고속도로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터전을 보고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김정한은 일상 공간, 자연공간이 자본과 권력의 영향으로 변용되어 그 속에 살아가던 민중들이 공간 상실감을 경험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 신문기사는 단순히 경지정리를 위한 환지로만 나와 있지만 소설에서는 도시 근처에 있는 농촌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공간이 변화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작가는 단순히 공간이 변용되었다는 사실 진술을 위해서 소설을 쓴 것이 아니다. 공간의 변용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간을 디스토피아로 만들어버린 자본과 권력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김정한은 공간의 변용을 통한 공간 특성 상실을 보편적 현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소설 속에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한다. 바로 ‘로컬리티’이다. 신문기사에 실제 사건이 발생한 곳은 전북 익산군 함라면 다망리 망월부락이라고 자세하게 실제 지역 이름이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소설에는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으나 등장인물들의 사투리와 냉정재, 곱은돌이 등의 지명을 통해서 볼 때 경남 김해 지역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²⁶⁾

김정한은 작품 대부분을 부산, 경남지역을 배경으로 썼으며 ‘낙동강 파숫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진 작가이다. 그에게 『어떤 유서』는 전북 익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부산, 경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김정한이 소설 속 배경을 전북에서 경남으로 바꾼 것은 지역공간의 특수성이나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로컬리티가 보편적 문제로서 지역을 초월하여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실환지의 문제와 보리증산,

26) 김해에서 서부 경남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냉정재가 위치해 있다. 소설 속에 냉정재 근처에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토지정리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 고속도로는 1972년 착공된 남해고속도로이다. 실제 냉정재는 현재도 남해고속도로 1, 2지선이 만나는 교차점이다.

대리경작의 문제는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농민들과 민중들에게 모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 본질이 중요하지 배경의 지역성은 『어떤 유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가가 배경의 변용을 통해서 특수성의 보편화를 이루어 낸 것은 작품의 공감을 위한 중요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간의 변용과 배경의 변화는 산업화, 현대화된 사회에서 민중들이 끊임없이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체제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 받는 상황을 드러내고 사회 구조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김정한은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사건을 추가하고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서 사회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겠다는 작가의식을 충분히 달성한 것이다.

4. 자본 침탈에 의한 정실환지의 문제와 현실고발

작가의 입장에서 신문기사에 보도된 대로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건을 작품화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의 읽는 즐거움이 반감되거나 작가의 창작 방법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한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무릅쓰고 신문기사를 작품화한 이유는 바로 현실참여적인 작가의식에 있다. 대규모 국가경제발전 개발계획에 따라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1970년대 중반, 농업이 쇠퇴하면서 많은 농토가 도시 개발과 산업공단 건설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거주자 중 도시로 나가서 공장 노동자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농촌에서 농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국가와 기업들은 이윤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침탈하고 농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공간에서 그들을 몰아내었

다. 김정환은 일제강점기부터 이미 농민에 대한 관심을 여러 소설을 통해서 드러냈으며 산업화 시기에도 여전히 그들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의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신문기사에 보도된 한 농민의 죽음은 작가가 농촌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국 작가는 『어떤 유서』에서 당시 국가가 산업화의 명목으로 농지를 침탈한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든 농민과 민중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임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보편성을 근거로 김정환은 『어떤 유서』에 송노인과 같이 꺾박받는 민중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권력의 횡포를 비판했다.

작가가 『어떤 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내용은 산업화로 인한 농지 침탈과 그에 따른 환지(換地) 문제이다. 환지를 할 경우에는 원래 땅의 가치만큼 정확하게 평가해서 환지를 해야 한다는 “원지본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어떤 유서』의 송노인은 전천후사업으로 경지정리 공사가 실시되어 천오백열 평 중 원지로 사백 평만 받고 나머지는 산을 깎은 개간지를 환지로 받았다.²⁷⁾ 그 원인이 바로 환지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사사로운 정과 환지위원들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실환지(情實換地)’에 있다.

【三千浦】사천군 사남면 초전리 주민 1백여 명은 현재 완공 단계에 있는 초전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가 당초 설계와는 다른 공사인데다가 농지위원들이 환지를 정실 배정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초전지구 93정보의 경지정리사업은 사천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시공 오는 20일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사천군 농지개량조합은 이 지구 경지정리사업장을 상·하부로 구분, 상부를 하부보다 한층 높게 만들어 배수로를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

27) 『동아일보』 신문기사에는 “문전옥답 이천칠 평을 원지 구백 평, 나머지 천백칠 평은 개간지 등 박토로 받았다.”고 되어 있다. 수치의 변화는 작품의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소설에서 원지로 환지받는 비율을 낮게 함으로써 환지의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당초의 설계를 임의로 변경, 상부나 하부가 같다는 것.²⁸⁾

위의 신문기사처럼 1970년대 토지 개발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대규모 공단이나 경지정리 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 농민들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대로 그곳에 뿌리박고 살아온 이들에게 농토는 그들의 존재 이유일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런 땅을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줘야했는데 원래 값어치조차 평가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존재할 가치가 없어져버린 것과 같다. 송노인이 “어떻게 선영을 대할지”(4권, 226쪽)를 한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선영’은 단순히 조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산업화 시대에 자본은 농민들이 대대로 이어온 전통을 단절시켰다. 조상을 모시는 것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전통은 무시되었다. 김정한은 이처럼 전통이 무시되는 공간의 변용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부당한 환지를 받은 민중들은 억울하지만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다루기 쉬운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마을 환지 위원들뿐만 아니라 가장 공정해야 할 농업진흥공사 사람들조차 정실환지에 연루된 현실을 보고 농민들은 희망을 잃었다. 그들은 “정부가 한 일에 문제제기를 하다가 더 큰 화를 입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송노인은 달랐다. 과거 일제강점기 송노인은 농민조합에 들어가서 농민봉기사건에 가담했을 정도로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대부분은 노인들이 세상이 변했음을 한탄하고 있을 때, 송노인은 두 달 동안 마을 환지위원과 농업진흥공사에 여러 번 찾아가서 부당 환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요구가 시종일관 묵살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남들과는 달리 끝까지 자신의 요구

28) 『정실환지 말썽』, 『매일경제』, 1970년 04월 03일자.

를 표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작가가 신문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는 송노인의 일제강점기 저항의 경력을 소설에 추가한 것은 송노인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려고 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일제에 저항했던 송노인을 죽음으로 내 몬 정실환지의 문제를 소설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당시 농촌 사회에서 농민들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 받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 정실환지의 주체가 마을 환지위원들의 횡포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세대 간의 갈등까지 구현하고 있다.

이른바 세대교체의 타인지도 모르되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어느 마을 할 것 없이 어른들을 다 뒤로 물러앉고 그런 젊은 치들이 마을 일을 도맡듯 해서 옳든 그르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용충을 주고 있는 판국이라고 송노인은 생각했다. 환지문제 기타로 인해 송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노인네들은 그저 “세상이 그런 걸 머!” 할 뿐 드러내 놓고 말을 잘 안했다. —요컨대 아직은 드러내 놓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마을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틈이 생기고 있는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어떤 유서』, 4권, 217-218쪽)

작가 또한 1932년 농민조합 활성화를 위해 활동 중 경찰에 피검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노인의 적극성은 작가의 그것과 닮아 있다. 소설 속에서 환지위원을 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의 적극적 삶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젊은 세대의 빗나간 현실인식을 작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작가가 우려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어떤 틈”이 단순한 반목이 아니라 같은 민중 내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라는 점이다. 가장 연약한 존재인 민중들이 내부에서의 불화로 분열되는 것은 결국 민중 세력의 자멸이라는 점에서 김정환은 세대 갈등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정실환지의 문제는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작가의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력의 횡포, 민중의

분열, 세대 간의 갈등 등 다양한 현실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정실환지의 문제와 연동해서 또 하나 농민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정책이 ‘보리 증산’이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곡물 생산 증대를 위해서 보리 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곡물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곡물 가격 하락과 지속적인 생산비의 증가로 인해서 보리 농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어떤 유서』에서 송노인의 논에 가을보리를 파종하지 못한 것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노동력을 사서까지 보리농사를 지으면 손해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일손이 없는 경우는 농사를 짓지 못한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 내 보리갈이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대리경작을 해버렸다.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식량 증산을 위해서 힘없는 영세농민들의 땅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횡포가 소설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들의 옛등 논에는 마을 청년들이 보리갈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다. 재벌의 소유란 몇 십만 평씩의 노는 땅들은 이 나라의 식량사정과는 무관한 것인지 대리경작은커녕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송노인은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다.(『어떤 유서』, 4권, 223쪽)

대리경작은 농민들을 피폐한 삶으로 몰아가면서도 재벌 소유의 땅은 건드리지 못하는 불공정한 정책이었다. 송노인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심적 고통을 느끼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경우 품앗이의 형태로 협업을 통해서 서로 도왔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농촌의 협업은 사라지고 개별 농민들이 기계를 사용하거나 인부를 사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송노인과 같은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국가에 의해 보리 이모작이 제한된 현실은 농민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농사를 포기하게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아래 신문기사를 보면 『어떤 유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보리증산을 위한 대리경작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신문기사는 당시 식량 증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던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전】 충남도는 일손이 달려 보리갈이를 못하는 영세농민들의 전답은 마을청년회 등을 통원, 대리경작을 시키는 등 강제집행하면서 재벌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사놓고 놀리는 전답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중략…)

놀리고 있는 농지 가운데 25만여 평은 논이고 16만여 평은 밭이어서 이곳을 제대로 경작하는 경우 연간 쌀 3백10여t과 보리쌀 1백20여t을 생산할 수 있고 총 7천3백만 원(정부가격)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일부 농지만 소작을 시켰을 뿐 나머지는 방치해 두고 있다.

도는 지난 25일 보리증산을 이유로 가을보리를 갈지 않는 농지는 마을청년회 홍농계 등에 용역을 주어 대리경작을 시키기로 하고 30일 현재까지 20여건 3만여 평에 대리경작을 했다.²⁹⁾

기사를 통해 볼 때 재벌들의 논밭 41만평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반면에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영세농민들의 농지 3만평만 대상으로 대리경작을 강제로 집행했다. 김정환은 이처럼 민중들에게는 가혹하고 권력과 자본에는 관대한 국가의 비논리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작가는 당시 현실을 신문기사로 접했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살아가는 낙동강 주변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 인식을 가졌다. 몇 십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사슴 목장”이나 “수출관광농장”이란 이름으로 식량증산의 정책을 비껴선 자본가들의 유희지는 아름다운 풍경화의 배경이 아니라 일그러진 민중들의 피와 땀이 섞인 땅이다. 작가는 부조리로 농민들로부터 떨어진 이런 유희지들에 시선을 뒹뚱 돌려 농민들의 참된 표정을 포착해내는 민중적 리얼리즘을 소설에서 실현했다.³⁰⁾

29) 『보리갈이 않는 農民(농민) 땅엔 代理耕作(대리경작) 시키고 財閥(재벌) 소유 農地(농지)는 放置(방치)』, 『동아일보』, 1974년 10월 31일자.

소설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볼 때 김정한은 정실환지를 단순히 어느 한 마을,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거나 피해농민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정실환지와 식량증산 정책에 따른 대리경작이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힘없는 영세농민들을 몰락으로 내모는 권력의 사악한 횡포임을 폭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런 정책들이 농촌의 전통적 가치관과 유대의식을 붕괴시키고 세대 간의 갈등까지 촉발하여 농촌을 붕괴시키고 있음을 철저하게 증명하는 것이 「어떤 유서」의 작가의식이다.

5. 나오며

지금까지 「어떤 유서」와 관련 신문 기사를 비교 분석하여 김정한의 작가의식과 소설쓰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하나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작가가 소설을 창작하는 것은 반복 재생산이 아닌 새로운 작품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중심 사건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사건과 인과관계의 형성, 공간의 변용과 인물의 묘사를 통해서 작가가 의도한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김정한은 이를 잘 활용하여 「어떤 유서」를 통해서 당대 농민들의 불안정한 삶을 사실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다.

김정한은 리얼리즘 작가로서 민중들의 꺾박받는 삶이 실린 신문 기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지국장을 맡았다가 폐간 당한 경험도 그가 평생 신문을 옆에 두고 살아간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김정한은 신문에 대한 애착이 강했으며 신문이 민중들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언론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김정한의 소설쓰기는 신문기사 등의 언론매체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30) 김정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16-17쪽.

『어떤 유서』는 신문기사와는 달리 보조적 사건과 인물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고 공간의 변용과 배경의 변화를 통해서 작가가 의도한 바를 작품 속에 작 녹여내고 있다. 작가는 정실환지와 보리증산의 문제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삶의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이들에게 시선을 두고 민중적 리얼리즘을 확고하게 드러낸 요산의 작가정신은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쓰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또 하나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지역적 특성을 담지만 그것이 로컬리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했다. 공간을 경남으로 바꾸고 인물들이 사투리를 쓰지만 그것은 작가가 익숙하게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만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상황에서도 민중들이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정한은 이처럼 항상 민중의 시선에서 현실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소설쓰기는 언제나 부조리한 현실을 민중 대신 고발해 줄 입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한은 작가의식을 작품 속에 투영하기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한 작가이다. 본 연구는 김정한이 하나의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창작한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서』 한 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김정한의 다른 소설에는 부분별로 이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참고텍스트로 하여 소설 창작에 활용한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까지 분석을 하여 작가의 창작 방법과 작가의식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다면 김정한 소설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참고문헌

-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97.
- 김정한, 『洛東江의 파숫군』, 한길사, 1978.
- _____, 『樂山 文學과 人間』, 오늘의 문학사, 1978.
- _____, 『김정한 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83.
- _____,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 _____, 『황량한 들판에서』, 황토, 1989.
- 류지석 엮음,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 오현석, 『김정한 소설의 공간정치학』, 부산대 박사논문, 2017.
- 이순욱, 『1940년 6월 요산 김정한의 귀향 전후』, 『근대서지』 제8호, 근대서지학회, 소명출판, 2013, 223-237쪽.
- 전성욱, 『장소사랑과 지역문학의 논리 - 김정한 소설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18집, 동남어문학회, 2004, 107-134쪽.
- 조갑상, 『김정한 소설의 공간과 시간문제』, 『용연어문논집』 제6집,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83-98쪽.
- 조갑상 · 황국명 · 이순욱 엮음, 『김정한 전집』, 작가마을, 2008.
- 최미진,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243-272쪽.
- 황국명, 『부산소설의 지리적 상상력』, 『현대소설연구』 제4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9-39쪽.
-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 _____, 『마지막 강의』, 민음사, 2015.
-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 · 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Abstract>

A Study of Yosan Kim Jeong-han's Newspaper Reading and Novel Creation

Oh, Hyoun-Suk*

This study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Kim Jeong-han's novel 『some suicide note』 and a newspaper article. In this study, Kim Jeong-han's consciousness of writing and novel-writing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Kim Jeong-han is well known as a writer of realism. He was interested in the social issues covered on newspaper articles. So he took a newspaper article very seriously because newspapers are meaningful media that can show people's lives realistically.

On June 3, 1974, an article from Dong-A Ilbo and 『some suicide note』 cope with a very similar case. With this, It seems that Kim Jeong-han has created a novel 『some suicide note』 based on newspaper articles. Both deal with the problem that men of power deprive the farmland of peasants. At the time of industrialization, The farmland was destroyed for development. The farmers were expelled from the space where they had lived because of the men of power and Kim Jeong-han criticizes this reality. In addition, 『some suicide note』 also contains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The elderly criticize that the younger generation live in conformity with reality.

Kim Jeong-han is a writer based in Busan, and also most of his

* Pusan National University

novels are set in the Busan. This is why Kim Jeong-han's novels shows the locality. However, the locality of his novels are not limited just a region but shows the universality in that his novels deal with the problems that all people can suffer. Like this, his novel-writing is an active expression of writer's consciousness that accuses the absurd reality. Newspaper articles were effective tools for expressing this consciousness of writer.

Key Words : Yosan, Kim Jeong-han, novel, realism, Newspaper articles, Farmer, space

■ 논문접수 : 2017년 11월 19일

■ 심사완료 : 2017년 12월 6일

■ 게재확정 : 2017년 12월 18일

